

畫蛇添足 (화사첨족)

: 쓸데없는 욕심을 내어 본래 얻을 수 있는 성과까지 날려버리는 행동을 경계한 말이다.

'뱀을 그리는데 발을 덧붙이다'라는 뜻으로, '쓸데없는 짓'을 비유한다. 우리는 보통 줄여서 '사족(蛇足)'이라고 말한다. '전국책(戰國策)'의 '제책(齊策)'에서 유래했다. 초(楚)나라 장수 '소양(昭陽)'이 위(魏)나라를 공격하여 8개 성을 빼앗는 전공을 올리고 이 여세를 몰아 제(齊)나라를 치려고 하였다. 이에 초나라 출신 책사인 '진진(陳軫)'이 제(齊)나라 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소양'을 설득하여 철군하도록 하였다.

초나라에 어떤 사람이 제사를 지낸 후에 그의 문객들에게 술 한 병을 주었다(楚有祠者, 賜其舍人酒). 문객들은 "여러 사람이 마시면 부족하고, 한 사람이 마시면 남을 정도로 충분하다(數人飲之不足, 一人飲之有餘). 땅에 뱀을 먼저 그린 사람이 술을 마시게 하자(請畫地爲蛇, 先成者飲酒)"고 하였다. 드디어 한 사람이 뱀을 먼저 그리고 나서 술을 마시려고(一人蛇先成, 引酒且飲之) 왼손으로는 술병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뱀을 그리면서(乃左手持卮, 右手畫蛇) "나는 뱀의 발도 그릴 수 있다(吾能爲之足)"고 말하였다. 그가 뱀의 발을 완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고 있는데(未成), 그때 마침 다른 사람이 뱀을 다 그리고 나서 그의 술병을 빼앗으면서(一人之蛇成, 奪其卮) "뱀은 본래 발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 뱀의 발을 그릴 수 있는가(蛇固無足, 子安能爲之足)?"라는 말을 마치자마자, 다른 사람이 그의 술을 마셔버렸다(遂飲其酒). 뱀의 발을 그린 사람은 결국 그의 술을 빼앗기고 말았다(爲蛇足者, 終亡其酒).

'진진'은 '소양'에게 당신은 이미 위나라를 공격하여 커다란 공을 세워 더 이상 올라갈 관직도 없는데 어찌 전쟁을 계속하려 하는가, 실수라도 하면 '사족(蛇足)'을 그리려다 술을 잃어버린 자와 같게 되니 멈추어야 할 때 멈출 줄 알아야 된다고 설득하였다. 쓸데없는 욕심을 내어 본래 얻을 수 있는 성과까지 날려버리는 행동을 경계한 말이다.

守株待兔(수주대토)

: 낡은 관습만을 고집하여 지키고, 새로운 시대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 말

원래 그루터기를 지켜보며 토끼가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한비자(韓非子)》 〈오두편(五蠹篇)〉에 나오는 말이다.

한비(韓非)는 요순(堯舜)의 이상적인 왕도정치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이라고 주장하여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송(宋)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다. 하루는 밭을 가는데 토끼 한 마리가 달려가더니 밭 가운데 있는 그루터기에 머리를 들이받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것을 본 농부는 토끼가 또 그렇게 달려와서 죽을 줄 알고 밭 갈던 쟁기를 집어던지고 그루터기만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토끼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그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刻舟求劍[각주구검]

: 어리석고 미련하여 융통성이 없다는 뜻.

- 유래와 교훈

중국 초(楚)나라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들고 있던 칼을 물 속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곧 칼을 빠뜨린 뱃전에 칼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두었다. 이윽고 배가 언덕에 와 닿자 칼자국이 있는 뱃전 밑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 에 칼이 있을 리 없었다. 이와 같이 옛것을 지키다 시세의 추이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하나만을 고집하는 처사를 비유해서 한 말이다. 《여씨춘추(呂氏春秋)》에 그 유래가 전한다.

- 관련된 비슷한 성어

守株待兔(수주대토) : 어떤 착각에 빠져 되지도 않는 일을 공연히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말.

尾生之信(미생지신) : 미생이란 사람의 믿음이란 뜻으로, 미련하도록 약속을 굳게 지키는 것이나 **고지식하여 융통성이 없음**을 가리키는 말.

菽麥不辨(숙맥불변) : 콩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말로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라는 뜻.

朝三暮四 (조삼모사)

: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라는 뜻으로,

①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차별(差別)만을 알고 그 결과(結果)가 같음을 모름의 비유(比喩・譬喩)

②간사(奸邪)한 꾀를 써서 남을 속임을 이르는 말

출전

열자(列子)의 황제편(黃帝篇)

유래

宋나라 때 저공(猪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숭이를 사랑하여 이를 길러 여러 마리가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저공이 능히 원숭이의 뜻을 알고 원숭이도 또한 저공의 마음을 알았다. 저공이 집안 식구들의 먹을 것을 줄여서 원숭이의 배를 채워 주더니 마침 먹을 것이 떨어졌다. 앞으로 그 먹이를 줄이고자 하나 여러 원숭이가 앞으로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 먼저 이를 속이어 말했다. "너희들에게 먹이를 주되 아침에 세 개를 주고 저녁에 네 개를 주겠으니 좋으냐?"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러 원숭이가 다 일어나서 화를 냈다. 저공이 다시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먹이를 아침에 네 개를 주고 저녁에 세 개를 주겠으니 좋으냐?"하니 여러 원숭이가 다 엎드려 절하고 기뻐했다.

螢窓雪案(형창설안)

: 반딧불과 눈빛으로 이룬 공이라는 뜻으로, 가난을 이겨내며 반딧불과 눈빛으로 글을 읽어가며 고생 속에서 공부(工夫)하여 이룬 공을 일컫는 말

출전

진서(晉書)

유래

진(晉)나라의 차운(車胤)이라는 소년이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전한 노력가로 공부를 열심히 했으나 집안이 가난해 등불을 켜는 데 사용(使用)하는 기름조차 없었다. 소년은 밤에도 책을 읽고 싶었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얇은 명주 주머니를 벌레통처럼 만들어 그 속에 반딧불을 수십 마리 집어넣어 거기서 나오는 빛으로 책을 비추어 읽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끝에 상서랑(尙書郎)이라는 중앙 정부의 고급 관리(官吏)로 출세했다.

또 같은 시대에 손강(孫康)이라는 소년은 어릴 때부터 악한 무리들과 사귀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으나 역시 집안이 가난해 등불을 켜 기름을 살 수가 없었다. 소년은 궁리 끝에, 겨울날 추위를 견디며 창으로 몸을 내밀고 쌓인 눈에 반사되는 달빛을 의지해 책을 읽었다. 그 결과 어사대부(御史大夫)라는 관원(官員)을 단속하는 관청의 장관이 되었다.

反哺之孝(반포지효)란...

反 : 돌이킬 반

哺 : 먹일 포

之 : 어조사 지

孝 : 효도 효

이밀(李密:224-287)의 《진정표(陳情表)》에 나오는 말이다. 이밀은 진(晉) 무제(武帝)가 자신에게 높은 관직을 내리지만 늙으신 할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관직을 사양한다. 무제는 이밀의 관직 사양을 불사 이군(不事二君)의 심정이라고 크게 화내면서 서릿발 같은 명령을 내린다. 그러자 이밀은 자신을 까마귀에 비유하면서 “까마귀가 어미새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조모가 돌아가시는 날까지만 봉양하게 해 주십시오(烏鳥私情, 願乞終養)” 라고 하였다.

까치나 까마귀에 대한 인식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같다. 보통 까치는 길조, 까마귀는 흉조라고 인식한다. 까마귀는 음침한 울음소리와 검은 색깔로 멀리 하는 새이며,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또한 까마귀는 시체를 먹는 불결한 속성이 있어 까마귀 밥이 되었다고 하면 곧 죽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까마귀는 불길의 대명사로 인식하고 있지만 인간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간과할 수 없는 습성도 있다.

명(明)나라 말기의 박물학자 이시진(李時珍:1518~1593)의 《본초강목(本草綱目)》에 까마귀 습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까마귀는 부화한 지 60일 동안은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지만 이후 새끼가 다 자라면 먹이 사냥에 힘이 부친 어미를 먹여 살린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까마귀를 자오(慈烏:인자한 까마귀) 또는 반포조(反哺鳥)라 한다. 곧 까마귀가 어미를 되 먹이는 습성을 반포(反哺)라고 하는데 이는 극진한 효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연유로 반포지효는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자식의 지극한 효도를 뜻한다. 비슷한 말로 반의지희(斑衣之戲), 반의희(斑衣戲), 채의이오친(綵衣以娛親)이 있다.

三人成虎=(三人成市虎)

: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뜻으로,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남이 참말로 믿기 쉽다는 말

출전

전국책(戰國策)

유래

龐葱與太子質于邯鄲，謂魏王曰：“今一人言市有虎，王信之乎？”王曰：“否。”“二人言市有虎，王信之乎？”王曰：“寡人疑之矣。”“三人言市有虎，王信之乎？”王曰：“寡人信之矣。”

龐葱曰：“夫市之無虎明矣。然而三人言而成虎。今邯鄲去大梁也遠于市，而議臣者過于三人矣。願王察之矣。”王曰：“寡人自爲知。”于是辭行，而讒言先至。後太子罷質，果不得見”

방충이 태자로 더불어 한단에 인질로 있을 때 위나라 왕에게 일러 말하길, 지금 한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있다고 말하면 왕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믿지 않겠다고 말했다. 방충이 두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있다고 말하면 왕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과인은 그것을 의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충이 말하기를 세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말하면 왕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하니 왕이 말하길 과인은 그것을 믿을 것 같구나 하고 말하였다.

방충이 말하기를 대개 시장에 호랑이가 없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말로 호랑이를 만든 것이지요. 지금 대량을 떠나 한단으로 갑니다. (원문 상의 해석) 멀리 있는 시장입니다만 여러 신하들은 세 사람을 넘을 것이옵니다. 원컨대 왕께서는 그것을 헤아려 살피소서. 왕이 말하기를 과인이 알아서 하겠소" 이에 사례하고 떠났지만 참언이 먼저 닿아 뒤에 태자는 인질에서 풀렸으나 과연 (방충은 인질에서 풀려남을)보지 못하였다.

한비자(韓非子)

중국 전국(戰國)시대 말기 한(韓)나라의 공자(公子)로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주창한 한비(韓非:280?~BC 233)와 그 일파의 논저(論著).

중국 춘추(春秋) 시대 말의 정치가·법률가. 이사(李斯)와 함께 순자(荀子)에게 법률을 배웠다. 나라가 날로 어지러워짐을 슬퍼하여 왕에게 새로운 개혁(改革)과 질서 확립을 건의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 이에 법률(法律) 제도를 밝혀 군주의 권력을 확립하고, 신하를 법률로써 다스려 부국강병(富國強兵)을 도모하였다. 너무 글을 읽는 데만 치우친 유교의 무기력한 교육을 배척하고, 순자의 성악설(性惡說), 노장(老莊)의 무위자연설(無爲自然說)을 받아들여 법가의 학설을 대성시켰다. 그의 학설은 당시의 현실 정치를 직접 반영시킨 것으로 진왕이 실시하였으나 뒤에 질투심 많은 이사·요가(姚賈)의 참소로 독살당하였다. 형법의 여러 이론들을 설명하고 풀이한 《한비자(韓非子)》란 유명한 저서를 남겼다.

歷山之農者侵畔，舜往耕焉，暮年，畊畝正。河濱之漁者爭坻，舜往漁焉，暮年而讓長。東夷之陶者器苦窳，舜往陶焉，暮年而器牢。仲尼歎曰：「耕，漁與陶，非舜官也，而舜往爲之者，所以救敗也。舜其信仁乎！乃躬藉處苦而民從之。故曰：聖人之德化乎！」

或問儒者曰：「方此時也，堯安在？」其人曰：「堯爲天子。」然則，仲尼之聖堯奈何？聖人明察在上位，將使天下無姦也。今耕漁不爭，陶器不窳，舜又何德而化？舜之救敗也，則是堯有失也。賢舜，則去堯之明察；聖堯，則去舜之德化：不可兩得也。楚人有鬻楯與矛者，譽之曰：「吾楯之堅，物莫能陷也。」又譽其矛曰：「吾矛之利，於物無不陷也。」或曰：「以子之矛陷子之楯，何如？」其人弗能應也。夫不可陷之楯與無不陷之矛，不可同世而立。今堯·舜之不可兩譽，矛楯之說也。且舜救敗，暮年已一過，三年已三過。舜有盡，壽有盡，天下過無已者；以有盡逐無已，所止者寡矣。賞罰，使天下必行之。令曰：「中程者賞，弗中程者誅。」令朝至暮變，暮至朝變，十日而海內畢矣，奚待暮年？舜猶不以此說堯令從己，乃躬親，不亦無術乎？且夫以身爲苦而後化民者，堯·舜之所難也；處勢而驕下者，庸主之所易也。將治天下，釋庸主之所易，道堯·舜之所難，未可與爲政也。」

[韓非子 難勢編]

여산의 농부들은 밭고랑을 서로 침범하고 있었다 순이 가서 경작을 하니 1년쯤 뒤에는 밭고랑이 바르게 되었다 황하강변의 어부들은 물 가운데의 나지막한 뉘시터를 두고 다투고 있었는데 순이 가서 뉘시터를 하니 1년쯤 뒤에는 손윗사람에게 양보하게 되었다. 동이의 도공이 만든 그릇은 조악했었는데 순이 가서 도자기를 만드니 1년쯤 후에는 그 제품이 좋아졌다.

공자는 이러한 일에 대하여 감격하여 말했다 “농사나 어업은 도자기 제조와 함께 순의 본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이 가서 작업을 한 것은 백성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순은 실로 인자한 것이다. 스스로 경작을 하며 고생스러운 일을 하니 백성은 그를 따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의 덕화는 탁월하다고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유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때 요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었을까?

선비가 말했다 “요는 그때 천자였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그렇다면 공자가 요를 성인이라고 생각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성인이 지혜를 빚내어 군주의 지위에 오른 것은 천하에 간악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경작과 어업에 대해서 싸움이 없고 자기가 조악하지 않았다면 순이 어째서 덕으로 감화시키려 했겠는가. 순이 현자라고 한다면 요의 지혜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요를 성인이라고 하면 순의 덕화를 부인하게 된다. 양편을 동시에 긍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떤 초나라 사람이 방패와 창을 팔고 있었다. 방패에 대해 '내 방패의 견고함은 어떤 것(물건)도 이것을 뚫지 못하오.'라고 추켜 말하고, 또 그 창에 대해 '내 창의 예리함은 어떤 것이라도 뚫지 못함이 없소.'라고 추켜 말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뚫으면, 어찌 되는 것이오.'라고 말하니, 장수가 아무 응답을 하지 못했다.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와 무엇이나 뚫을 수 있는 창은 이 세상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요와 순 양자를 동시에 극찬할 수 없는 것도 이 창과 방패와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순이 잘못을 시정한 것은 꼭 1년 동안에 하나의 잘못을 시정했으면 3년 동안 3가지 잘못을 시정했을 뿐인 것이다.

순은 무수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 수명도 한도가 있는 것인데 세상의 잘못은 끝이 없다. 한 사람의 한계가 있는 수명으로 끝이 없는 잘못을 고치려하니 그 시정은 한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賞罰은 천하의 인간에게 법규를 행하게 하는 힘이 있다. 명령을 내려 법규에 따른 자는 포상하고 어긴 자는 벌한다. 아침에 이 명령이 내려지면 저녁에는 시정되고 저녁이 명령이 내려지면 아침에 바로 잡히며 10일 뒤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바르게 살게 된다. 어찌 1년 동안이나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순만은 이 생각을 요에게 설득하여 행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나가서 백성을 감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전혀 정책적인 면이 없지 않은가? 그리고 또 자기 몸뚱이를 괴롭히고 있는 백성들을 감화하려는 것은 요나 순이라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며 권세의 지위에 있는 자가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평범한 군주도 할 수 있는 노릇이었다. 천하를 다스리려는 자가 평범한 군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버리고 요나 순에게도 어려운 방침을 따르겠다는 것은 도무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狐假虎威(호가호위)

荊宣王問群臣曰，吾聞北方之畏昭奚恤也라，果誠何如？群臣莫對라．江一對曰，虎는 求百獸而食之한대 得狐하여，狐曰，‘子는 無敢食我也라．天帝使我長百獸하니 今子食我면 是는 逆天帝命也라．子以我爲不信이어든 吾爲子先行하리니 子隨我後하여，觀百獸之見我而敢不走乎하라’ 하니 虎以爲然하여 故로 遂與之行한대 獸見之하고 皆走어늘，虎不知獸畏己而走也하고 以爲畏狐也러라．今王之地方五千里이고，帶甲百萬한대，而專屬之昭奚恤으니，故로 北方之畏奚恤也라，其는 實로 畏王之甲兵也고，猶百獸之畏虎也라．《戰國策：楚策》

(荊(땅이름 형=楚나라) 宣(베풀 신) 王(임금 왕) 問(물을 문) 群(무리 군) 臣(신하 신) 曰(가로 왈) / 專:(오로지, 다만 전) 屬:속할속, 맞길촉
吾(나 오) 聞(들을 문) 北(북녘 북) 方(모 방) 之(어조사 지) 畏(두려워할 외) 昭(밝을 소) 奚(어찌 해) 恤(구할할 홀) 也(어조사 야) / 果(과연 과) 誠(진실로 성) 何(어찌 하) 如(같을 여) / 群(무리 군) 臣(신하 신) 莫(없을 막) 對(대답할 대)

출전 :전국책(戰國策)의 초책(楚策)

유래

전국 시대 중국의 남쪽 초나라에 소해홀(昭奚恤)이라는 재상(宰相)이 있었다. 북방의 나라들은 이 소해홀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다. 초나라의 실권을 그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나라 선왕(宣王)은 북방의 나라들이 왜 소해홀을 두려워 하는지 이상하게 여겼다. 어느 날 강을(江乙)이라는 신하(臣下)에게 물어보자 강을이 대답(對答)했다. "전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여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잡아 먹히게 된 여우가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리게나. 이번에 나는 천제로부터 백수의 왕에 임명되었네. 만일 나를 잡아먹으면 천제의 명령(命令)을 어긴 것이 되어 천벌을 받을 것이야. 내 말이 거짓말이라 생각하거든 나를 따라와 봐. 나를 보면 어떤 놈이라도 두려워서 달아날 테니.' 여우의 말을 듣고 호랑이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과연 만나는 짐승마다 모두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짐승들은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달아난 것이지만, 호랑이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북방의 제국이 소해홀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실은 소해홀의 배후에 있는 초나라의 군세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